



테살로니키
고고학 박물관

상설 전시관

한국어



선사 시대 마케도니아

지하

11



도시들의 탄생을 향해

1층

4



7세기 부터 고대 후기 까지의 마세도니아

1층

5



테살로니키, 마세도니아의 중심

1층

6



금빛의 마세돈

1층

7



들판 집 정원 묘

야외 정원

8



영업시간

-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요일: 오전 10:30 - 오후 2:00
화요일 - 일요일: 오전 8:30 - 오후 3:00
-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요일: 오후 1:30 - 8:00
화요일 - 일요일: 오전 8:00 - 오후 8:00
- ▷ 12월 25일, 26일/ 1월 1 일/ 3월 25일/
5월 1일/ 부활절에는 박물관을 닫습니다.

입장료

- ▷ 일반 입장료: 6 euros
- ▷ 할인 입장료: 3 euros
- ▷ 조합적 콤비네이션 입장료: 8 euros
인접해 있는 비잔틴 문화 박물관
입장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할인된 콤비네이션 입장료: 4 euros
- ▷ 무료 입장권:
 - 1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 특정 그룹을 위한 무료입장권은 휴가기간
에도 쓸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테살로니키
고고학
박물관

www.amth.gr

주소: 6, M. Andronikou str.
GR 546 21, Thessaloniki
Tel: +30 2310 830538
Fax: +30 2310 861306
Email: info.amth@culture.gr



테살로니키 고고학
박물관의 친구



그리스 교육 종교 교류부,
문화와 스포츠부
문화 사국국

테살로니키 고고학 박물관



테살로니키 고고학 박물관은 건축가 페트로클로스 카란티노스의 설계아래 1962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은 그리스에서 현대 예술의 고유한 예로 나열되었으며 이 박물관은 테살로니키 도시의 해방 직후 정부가 처음으로 지지하며 운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2002년 부터는 문화 관광부가 독립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의 컬렉션은 독특한 예술 작품들로부터 고고학자들이 마세도니아 전역에서 발굴한 작품들까지 다양한 전시품들을 선보입니다.

2003년, 박물관은 새로운 기술 및 박물관적 진보를 충족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고대 유물을 전시하는 새로운 이 전시는 개인 및 공공 생활의 모든 측면을 여섯개의 주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제일 큰 기획전과 2-5개의 부기획전이 매년 개최됩니다. 이 기획전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의 특별하고도 독특한 일상과 생활을 포함하여 그리스는 물론, 남동부 지중해 연안의 넓은 문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사 시대 마케도니아

지하

11

이 전시관은 마세도니아에서 찾은 초기 유인원 유라노피테쿠의 두개골 조각과 함께 인류 기원의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페트라로나 (BC 20년)의 두개골을 보여주며 구석기 시대 (BC 350,000년 부터 BC 10,000년 까지)를 살피어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의 생산 단계 시작을 보여주는 사냥, 낚시, 농업, 가축 키우기, 요리, 저장, 직물, 금속 가공, 상업 교류와 기술이 전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사람의 형이상학적과 이념적 관념과 관련된 유물도 보여드립니다.



도시들의 탄생을 향해

1층

4

1층에서 시작되는 전시전은 '도시의 탄생을 향해' 테마로 철기 시대의 설립을 증언할수있는 중앙건물과 농산물을 넣었던 창고들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 전시품들은 테살로니키의 카스카나, 필라델피아, 아시로스 또는 톨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시전은 동시에 중앙과 남부 그리스와의 강화된 상업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남부그리스의 도시중 멘델, 아칸토스, 토로니, 스타기라, 디키아 및 멘토니가겔프 연안에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아리아드 테메니드 왕조는 그런 식민지의 주민 정착 경험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산의 동쪽부터 핀도스 산의 왼쪽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지휘권과 권한을 가지고 마세도니아 전체를 관리하였습니다.



7세기 부터 고대 후기까지의 마세도니아

1층

5

이곳의 전시관은 마케도니아 왕국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고풍시대부터 마세도니아가 로마 제국의 지방이 된 제국시대(AD 1- 4세기)까지의 마케도니아인들의 공개인적 생활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전시관은 정치, 군사, 사회경제, 예술, 종교와 마케도니아 도시의 관습들을 포괄한 8개의 구성 단위로 나누어져있으며 중앙 마케도니아의 고대 도시들 (테살로니키, 피에리아, 킬키스, 할키디키 지역)에서 발굴된 작품이 나열되어있습니다.



테살로니키, 마세도니아의 중심

1층

6

이곳에서는 테살로니키 도시의 역사 및 고고학적 증거에 전념하고있습니다. 테살로니키는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시대를 기반으로하여 로마 시대에 언어, 문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케도니아의 기억을 유지하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지로 BC 315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전시관의 끝에는 고풍 이오니아 사원의 부분이 재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원의 본래의 위치는 알수없으나 로마시대에 황제들의 동상으로 장식되어 테살로니키 보호구역으로 전승되었다합니다.



금빛의 마세돈

1층

7

안뜰은 마세돈의 금에 집중합니다. 이 곳에서는 주로 고어나 클래식한 모자같은 다양한 곳에서 발굴한 최고의 미술들을 전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귀금속 가공의 모든 단계에 대한 설명부터, 광산 착굴작업, 그리고 고대 마세도니아인들의 공개인적 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객체들을 만들고 장식할때 사용되는 어려운 기술까지 보여주고있습니다.



들판 집 정원 묘

야외 정원

8

이곳의 들판 집 정원 묘는 AD 2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테살로니키의 유물들을 전시하도록 새롭게 여 곳입니다. 먼저, 처음 구획은 석관과 고대도시의 서쪽과 동쪽 모퉁이에서 제단 같이 가상으로 구성한 묘지를 보여줍니다.

두번째 구획은 현대적인 건축재료로 만든 가상의 그리스 로마 집으로 구성되어 진품 모자이크 바닥과 가구, 그리고 공개인 활동과 생활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있습니다.



- 1층/ 야외
- 1출입구
- 2기념품 가게
- 3'마놀리스 안드로니코스' 홀
- 4전시관: 도시들의 탄생을 향해
- 5전시관: BC 7세기부터 고대 후기까지의 마세도니아
- 6전시관: 테살로니키, 마세도니아의 중심지
- 7전시관: 마세돈의 금
- 8전시관: 들판 집 정원 묘
- 지하
- 9'아울리아 보코토폴로' 홀
- 10단기 전시관
- 11전시관: 선사 시대 마케도니아
- 12교육관
- 13안마당 아트리움

